



최 경 목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교수

고혈압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약물요법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동맥경화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및 뇌혈관질환(중풍)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므로 그 치료가 중요시되고 있다.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의 고혈압은 당뇨병성 신증(신장질환)과 망막증(안질환)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는 나이가 드는 것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약 250만명의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을 경우 고혈압을 더욱 많이 동반하게 된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되면 훨씬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거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과 함께 철저한 혈압조절은 당뇨병 환자 관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치료목표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치료목표는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위험을 낮추고 동시에 당뇨병성 신병증과 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신병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축기 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5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말기 신부전 진행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만 특히 수축기 혈압이 신기능 감소와 연관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일 1g 이상의 단백뇨가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평균 혈압을 92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이는 대체로 수축기 혈압 125mmHg 미만, 이완기 혈압 75mmHg에 해당한다.

항고혈압제의 선택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혈압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제마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약물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항고혈압제는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가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당뇨병 환자에서는 1차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종류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가 선호되며, 이로써 충분한 혈압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약제를 병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혈압강하제의 종류들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ⅢⅢⅢ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장점 - 장기혈류를 유지, 호전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시킨다. 단백뇨를 감소시키며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부작용 - 마른기침이 날 수 있으며 기타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고 신장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오히려 신기능이 악화될 수도 있다.

ⅢⅢⅢ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

장점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유사하다. 마른기침이 보다 적다.

부작용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유사하다.

ⅢⅢⅢ 칼슘 길항제

장점 - 장기혈류의 유지, 호전과 당대사 혹은 지질대사에 나쁜 작용이 없다. 일부에서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알려져 있다.

부작용 - 심부전이나 전도장애시 일부 약제사용이 금지된다.

ⅢⅢⅢ 베타 차단제

장점 - 심근 경색증후 1차 혈압강하제로서 좋은 작용이 알려져 있다.

부작용 - 인슐린 작용을 악화시키고 지질대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저혈당 증상을 감소시켜서 저혈당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심한 심부전이나 천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다.

ⅢⅢⅢ 이뇨제

장점 - 다른 1차 약제로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2차 약제로 유용하다.

부작용 - 인슐린 작용을 악화시키고 대량사용시 지질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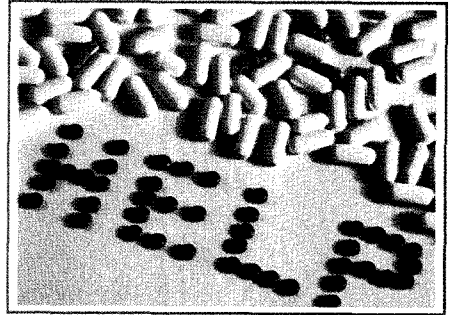
ⅢⅢⅢ 알파 길항제

장점 - 당대사나 지질대사에 나쁜 영향이 없다. 2차 약제로 유용하다.

부작용 - 기립시 저혈압이 나타나 어지러울 수 있다.

이상의 장점과 부작용들은 약제 종류간의 극히 부분적인 특성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각 약제들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

받도록 해야 한다. 단 고혈압 약제 투여 후부터 마른기침이 계속 나온다면 심하게 어지럽거나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한번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강조할 점은 양약을 오래 투여하면 몸이 망가진다고 하면서 무조건 약제를 피하면서 민간요법에 의지하려는 환자도 있는데, 실제로 약제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보다 훨씬 안전하다. 또 혈압의 적절한 조절이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혈압이 높을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